



산책 2013 oil on canvas 227 x 162 cm Courtesy of the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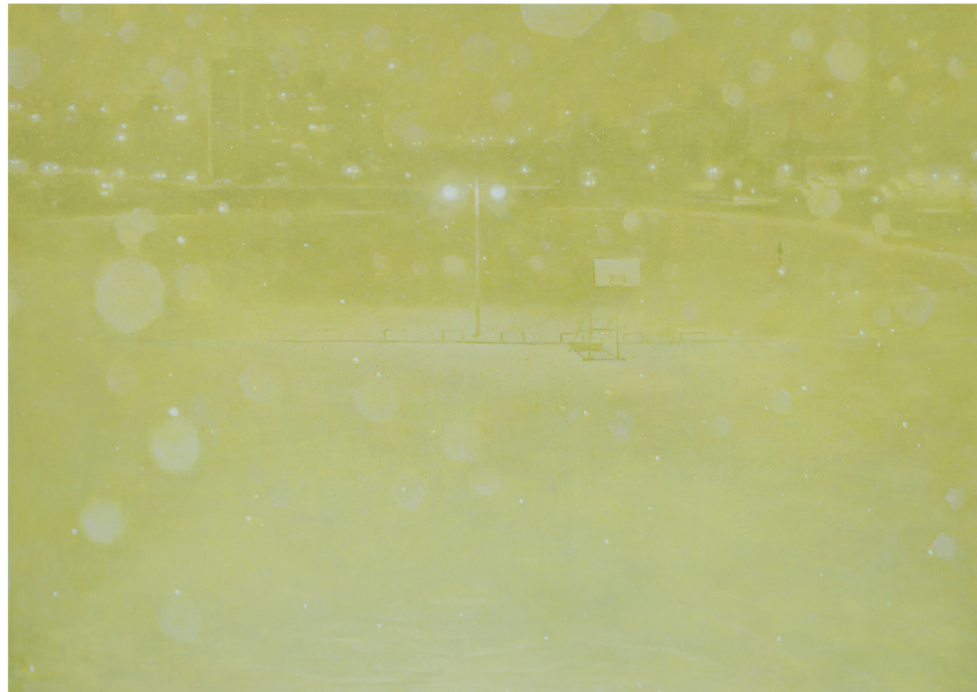
여름의 끝3 2013 oil on canvas 115 x 115 cm Courtesy of the Artist

낮선 풍경의 질감

노충현 작가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을 폭설이나 장마와 같은 일상적인 사건과 더불어 '기억을 담은 공간'으로 표현했다. 작가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도시 한 켠의 풍경들은 마치 실재하지 않는 장소처럼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수물 3 2013 oil on canvas 80 x 80 cm Courtesy of the Artist



유수지의 밤 2013 oil on canvas 182 x 259 cm Courtesy of the Artist



노충현

홍익대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살풍경〉(2005 관훈갤러리),
 〈자리〉(2006 대안공간풀),
 〈실말실〉(2009 사루비아다방)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경기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노충현 작가의 작품에서 공간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특히 그의 회화가 담아내는 계절에 따른 자연적 풍광과 인공적 풍경들의 조합은 서울이라는 도시 안의 공간이 지닌 중층적인 의미들로 이어진다. 작가가 2005년부터 지속해온 주제인 〈살풍경〉 연작에서 공간의 구체적인 상황, 장소적 특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질감 혹은 흔적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현실적 삶의 조건들을 환기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이 공간은 때로는 정치적인 공간으로 읽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런 의도도 발견할 수 없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읽힐 수도 있다. 작가는 이러한 모호하고도 흐릿한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동시대의 도시 풍경이 지닌 중의성을 담아낸다. ✎

Editor 김현희 | Cooperation 국제갤러리